

- ①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구분됩니다.
- ② 다원론적으로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합니다.
- ③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.
- ④ 계급 간 대립이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.

13. <보기>는 갑과 을의 신발과 의류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분석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(단위: 시간)

구분	갑	을
신발	20	60
의류	10	15

- ① 갑은 두 재화 생산 모두에 절대우위 상태이다.
 ② 갑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의류 1/2 단위이다.
 ③ 을은 의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.
 ④ 을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보다 크다.

14. <보기 1>의 밑줄 친 ‘정책’으로 적절한 것을 <보기 2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<보기 1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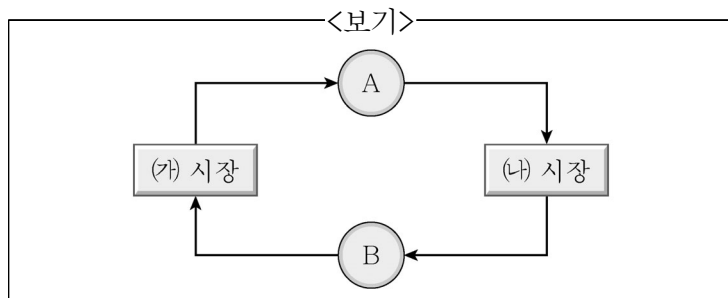
현재 갑(甲)국은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. 이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.

<보기 2>

ㄱ. 소득세율 인하 ㄴ. 기준금리 인하
 ㄷ. 지급준비율 인상 ㄹ. 국·공채 매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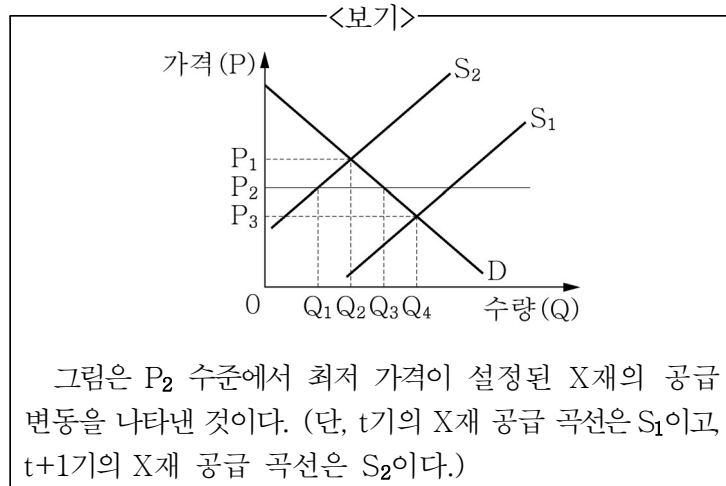
- ① ㄱ, ㄴ ② ㄴ, ㄷ
 ③ ㄷ, ㄹ ④ ㄱ, ㄴ, ㄹ

15. <보기>는 민간 경제주체 간 화폐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 (단, A와 B는 경제주체이다.)



- ① A가 가계라면 임금은 (나) 시장에서 결정된다.
 ② B가 기업이라면 (가)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된다.
 ③ B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라면 (나) 시장에서 기업은 수요자 역할을 담당한다.
 ④ (나) 시장에서 생산물이 거래된다면 A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이다.

16. <보기>의 X재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

- ① t기에 소비자의 총지출액은 $P_3 \times Q_4$ 이다.
 ② t+1기에는 Q_1Q_3 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.
 ③ t+1기에 거래량은 t기에 비해 Q_2Q_3 만큼 감소한다.
 ④ t기와 달리 t+1기에는 최저가격제가 실효성을 갖는다.

17. <보기>는 갑국의 환율 시세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 (단, 환율 시세는 갑국 화폐로 표시한다.)

<보기>

2018년 7월 1일 09시 32분			2018년 8월 19일 16시 00분		
	미국 USD	1200		미국 USD	1196
	일본 JPY 100	1000		일본 JPY 100	1026
	중국 CNY	185		중국 CNY	175

- ① 갑국 화폐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하였다.
 ② 자녀가 일본 유학 중인 갑국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.
 ③ 갑국 화폐 대비 중국 화폐가치가 상승하였다.
 ④ 갑국 국민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증가하였다.

18. <보기>의 (가), (나)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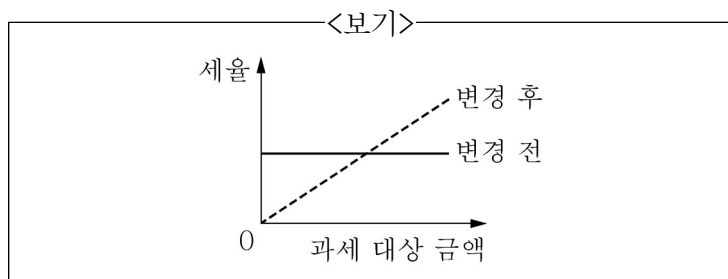
<보기>

(가) 판매되는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고, 그들의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누구도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.

(나)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고, 이 기업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생산에 대해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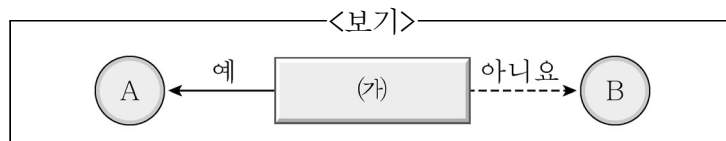
- ① (가)에서 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.
- ② (가)에서 사회적 잉여가 최소화된다.
- ③ (나)에서 재화는 사회에서 필요한 양보다 과다 생산된다.
- ④ (가)와 (나) 모두 시장실패의 사례이다.

19. <보기>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 변화를 나타낸다. <보기>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?



- ① 모든 상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다.
- ② 모든 차량 소유주에게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차량가격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.
- ③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소득세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.
- ④ 재산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동일하던 재산세를 재산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더 큰 방식으로 변경한다.

20. <보기>는 질문 (가)를 통해 금융 상품 A, B를 구분한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(단, A, B는 각각 주식과 채권 중 하나이다.)



- ① A가 주식이라면 (가)는 '만기가 정해져 있는가?'가 될 수 있다.
- ② B가 채권이라면 (가)는 '발행 기업의 입장에서 부채에 해당하는가?'가 될 수 있다.
- ③ (가)가 '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?'라면 A는 주식, B는 채권이다.
- ④ (가)가 '기업 소유 지분을 표시하는 증서인가?'라면 B의 소유자는 확정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.